

# 여야 대표회담 코앞...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

### 민주 "조건 달아도 수용" 법안 발의 재촉...국힘 내부선 반대 당론 이재명 대표, 25일 입장 표명 요구할 듯...한, 진전된 입장 없어 고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한 대표는 애초 '제삼자 추천 방식'을 회심의 카드로 들고나왔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인 동시에, 특검을 '정쟁 소재'로 이용하려는 야당이 받기 어려운 카드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에선 특검법 발의 움직임이 없다. 그 사이 야당은 특검법 수용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연설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했다는 제보가 민주당 인사들의 공작으로 이뤄졌다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당선된 뒤에 받을 뻔다",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라며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삼아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추진 의사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당장 대표 회담

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당내 의견 수렴 과정과 내부 설득이 먼저라는 명분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은 21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스탠프가 있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원내 기류도 공수처 수사 후 특검 검토라는 입장 그대로"라며 "민주당이 먼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부정적 기류는 한 대표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현재 당내에서는 의원들의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한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측근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는 기류가 감지된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공수처가 수사한 지 벌써 1년이 됐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지 정지를 하는 건지 햇갈릴 정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은 내지 않고 정치 놀음만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객관적 수석대변인인 노병에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찢김찢김 흘리며 간 보기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첫 합의로 국토위 통과

### 피해자, 공공임대서 최장 20년 거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

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중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정쟁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이래 국과 국 대립을 보여왔던 제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용이하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정부, 코로나 재유행에 무대책"

### 의료대란 수습 촉구...28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대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네 배 급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

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도 "자꾸 현금 살포를 운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현금을 만져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대표결할 것"이라며 "대안도 없이 상대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는 마인드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우원식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점 찾아달라"

### 여야에 '제삼자 추천안' 중심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

안이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나서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

에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였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우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병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